

“美 위성, 北 미사일 발사 움직임 포착”

CNN “무수단리 기지에서 설비 조립 관측돼”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로 대포동 2호 미사일 추정 물체를 운반한 데 이어 발사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1일 “평양 인근 군수공장에서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설비를 싣은 차량이 무수단리 기지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면서 “발사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설비를 계속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들 설비를 가지고 미사일을 조립, 발사대에 장착해 연료를 주입하는 등 실제 실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에 탑재된 설비가 기상

관측 레이더나 미사일의 탄착지점을 추적하는 정밀추적 레이더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공개할 만한(정보) 수준은 아니다”면서 “현재 작업 속도로 추정하면 한달 이내에 추진체에 연료를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CNN 방송은 이날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

한이 무수단리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에 필수적인 원격 측정설비를 조립하는 모습이 며칠 전 미군 첩보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 태평양사령부 대변인 브래들리 고든 소령도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아프간 자폭테러 잇따라 리처드 홀브룩 미 아프가니스탄 특사의 방문을 앞둔 11일(현지시간) 수도 카불의 정부청사 건물 등에서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협뉴스

대포동 미사일 요격 가능할까

게이츠 美 국방 언급 관심...요격시스템 가동 미지수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요격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요격해 성공한다면 일본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계가 추진력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게이츠 장관은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는 우리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만약

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대포동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준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발사 단계에서부터 요격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지 영공으로 진입하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사 작업이 진행 중인 대포동 2호 미사일 요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예상치 못했다. 지적이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은 지상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해상에서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로, 대포동 2

호 등 장거리 미사일은 알래스카 등에 배치된 10여기의 전략 요격미사일로 각각 격추하는 요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는 2개의 미사일 발사기지에 13기의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미사일방어(MD)체계는 상층단계-중간단계-종말단계로 구분된 다층방어망으로 이뤄진다. 탄도탄 기지에서 발사돼 30~40km 상층단계에서는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저(ABL)로 요격하고 고도 100km의 대기권을 돌파하는 중

간단계에서는 이지스함의 SM-3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로 저지하게 된다.

포물선을 그리며 나는 탄도탄이 마지막 비행단계에서 고도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고고도방어체계(THAAD)와 이지스함의 SM-2, 지상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요격한다.

만약 북한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가면 중간 단계에서부터 실제 요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일본은 2007년 말 하와이 인근의 태평양 상공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가점해 요격 시험에 성공했으며 작년도에도 합동으로 MD 요격 시험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성능이 아직도 베일에 싸여 실제 미국의 요격시스템이 가동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연협뉴스

이스라엘 총선, 집권 카디마당 1석차 1위

연정 구성 안갯속...중동 평화협상 먹구름

10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카디마당이 크네세트(의회) 전체 120석 중 28석을 차지해 보수야당 리쿠드당을 1석 차로 누르고 다수당이 됐다.

하지만 리쿠드당을 비롯해 보수 진영 정당들의 의석수가 과반을 접하고 있어 카디마당과 리쿠드당 중 어느 당이 새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맡을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앙선거 관리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된 결과, 카디마당과 리쿠드당이 각각 28석과 27석을 확보했고,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이스라엘 베이테누’당

이 15석, 중도 좌파인 노동당이 13석, 정통유대교 정당인 샤스당이 11석을 얻었다.

나머지 26석은 종교 정당인 토라유대주의당(5석), 아랍계 정당인 하다쉬당(4석), 좌파인 메레츠당(3석) 등 7개 군소정당에 돌아갔다.

이번 총선 투표의 최종 집계는 군인 등 부재자 표의 개표가 완료되는 12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카디마당의 당수인 치피 리브니 외무장관은 이날 텔아비브에서 지지자들에게 “유권자들은 카디마당을 선택했다”며 “우리는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승리를 선언했다.

연협뉴스

하지만, 리쿠드당의 베냐민 네타냐후 대표도 “내가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어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리쿠드당은 보수 성향의 정당들이 전체 120석 중 65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설득, 새 연정 구성의 권한이 네타냐후 대표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선거법은 상징적인 국가수반인 대통령에게 공식 투표결과가 나오면 1주일 이내에 의회 지도자들을 소집해 누구에게 정부구성을 맡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다수당의 대표에게 그 권한이 부여돼 왔다.

연협뉴스



클린턴 “北 위협행동 용납 안해”

북핵 6자회담 계속...수개월내 양자·다자 협상 기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위협행동에 대해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이 향후 수주 혹은 수개월내에 6자회담이나 다른 형태의 양

자 및 다자협상에 응하기를 기대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내주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는 클린턴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카렐 슈바르첸베르크 체코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 지역 안정과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의 전조가 아닐까 기대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의 입장은 이전과 똑같다. 우리는 6자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서 “우리(미국)와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고 북한의 핵확산활동을 중단토록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협뉴스

헉! 아직도 이런 일이...

아마존 원주민, 남성 인육 먹어 충격

아마존 삼림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인육을 먹는 잔인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북서부 아마조나스 주 경찰은 사람을 살해해 인육을 먹는 이른바 ‘카니발리즘(cannibalism)’을 행한 것

로 의심되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라질-페루 접경 알데이아 도 카카우 지역에 거주하는 콜리나(Kulina) 부족민인 원주민들은 한 장애인 남성을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살해된 남성은 올해

21세의 학생으로 아마조나스 주 엔비라 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원주민들은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인육을 먹는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콜리나 부족에게 ‘카니발리즘’ 전통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들 원주민들이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연협뉴스

광주문화센터

10000원까지 할인

※ 담보대출 안내

1,000만원	153,499	57.3%	48,097	31,292
3,000만원	310,497	58.5%	89,549	94,058
5,000만원	517,495	59.7%	134,495	158,760

※ 사업자 대출 안내

1,000만원 ~ 5,000만원

153,499 ~ 517,495

57.3% ~ 59.7%

48,097 ~ 134,495

31,292 ~ 158,760

novita

신뢰할 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비데프라자

비데프라자 | 062-515-1144